



어느 한 동산의 뽕죽산기슭에 꼬마곰이 살고있었습니다.

일찌기 엄마곰을 잃은 꼬마곰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높은 산, 낮은 산 가리지 않고 산발을 타고 오르 내리면서 도토리를 줏고 나무도 해오군 하였습니다.

어느해엔가 몹시 가물이 들어 산에 나무잎이 소들소들 말라 가드라드는 때였습니다.

꼬마곰은 하루종일 산으로 오르고내리고 살살이 훑고 또 훑었으나 밤 한되박, 도토리 한되박밖에 줏지 못했습니다.

하루식량이 되나마나 했습니다.

맥없이 산기슭으로 걸어오다가 작은 도토리나무밑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먹을게 있을가 하여 두리번거리던 꼬마곰은 손뼉을 치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야, 도토리.》

나무밑에는 두되박이나 될 도토리가 소북이 쌓여있었던

것입니다. 꼬마곰은 도토리밥을 지어 당장 출출한 배를 채우고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분한있게 먹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입니다.

(옳지, 이걸 갈아서 물을 부어 죽을 쑤면 며칠동안은 먹을수 있을거야.)

그런데 꼬마곰에게 도토리를 갈수 있는 망이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꼬마곰은 망을 하나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망을 하나 만들자면 품이 많이 들어야 하지만 일단 만들어놓으면 이웃들도 쓰니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입니다.

그는 뽕죽산에 올라 깨돌바위를 따가지고 내려와 하루종일 정으로 다스리고 쪼아서 알팍한 깨돌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푸레나무를 찍어서 손잡이도 척 만들어 쫓으니 제법 나무랄데 없는 망이 되었습니다.

꼬마곰은 도토리 한줌을 넣어 망을 돌렸습니다.

돌돌돌 망은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줌두줌 도토리를 넣고 망을 자꾸 돌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도토리가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망을 들어봐도 가루라곤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토리를 분한있게 먹으려던 꼬마곰은 너무도 억울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꼬마곰이 깨돌망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소리, 사슴과 노루들이 달려와 깨돌망을 돌려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깨돌망에서는 여전히 가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꼬마곰의 도토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웃들은 머뭇거리다가 약속이나 한듯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잠시후 사슴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좀 보태라구.》

사슴은 도토리 한되를 망에다 넣어주었습니다.

돌돌 망은 잘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다 노루가 또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엔 이것밖에 없구만. 이거라도 좀 보태라구.》

노루도 도토리 한되를 망에다 넣어주었습니다.

오소리도 한줌, 너구리도 한줌, 산토끼와 다람이도 몇 알씩 물고와서 넣어주었습니다.

망은 돌돌 잘 돌아갔습니다.

한끼라도 푸짐히 먹게 해주려는 이웃들은 마음을 조이며 돌돌 돌아가는 망을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그들은 눈이 썩해서 서로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망에서는 도토리가루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주먹같은 도토리알들이 툭툭떨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알이 아니라 계속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웃들은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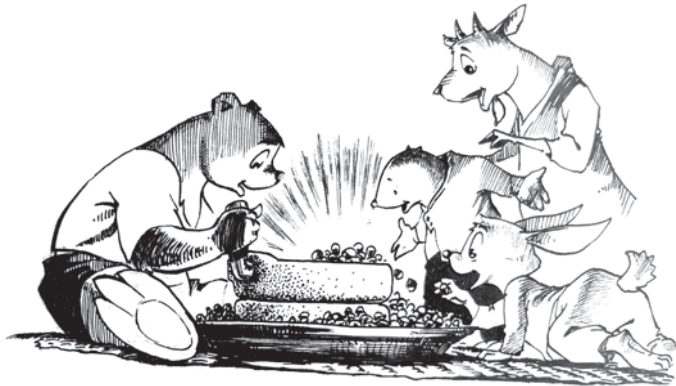
《아니, 이게 웬일이야? 보물망이 아니냐?》

모두들 좋아서 단지도 가져오고 동이와 향아리, 심지어는 큰 독까지 들여다 도토리를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이웃들은 꼬마곰의 생활이 편이게 되었다고 기뻐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꼬마곰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죽을 쭈어 먹으려던 꼬마곰은 그날 난생처음 노란 도토리
리로 지은 밥을 배불리 먹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꼬마곰은 도토리를 얻으러 산으로 오르고 내
리고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망을 돌리면 자꾸만 도토리가 나오니까요.

하루종일 돌리면 하루종일 도토리가 나왔습니다.

꼬마곰의 부엌과 창고에는 도토리가 차고넘쳤습니다.

꼬마곰은 낫을 들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가
서 나무를 한짐 해지고 내려와서는 뜨끈뜨끈하게 불을 때고
또 부지런히 망질을 하였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어깨춤도 절로 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무 근심걱정없이 살게 된 꼬마곰이었습
니다.

그러던 어느날 꼬마곰은 고개를 기웃하고 생각에 잠겼
습니다.

(망에서 나무도 나오고 옷감도 나오면 앉아서 편안히
놀면서 배불리 먹고 뜨끈뜨끈하게 불도 때고 잘살게 될것이

아닌가.)

그는 망을 돌리면서 중얼중얼 말하였습니다.

《내 살림을 늘여준 깨돌망 보물망아, 내 소원이 또 있으니 다시 한번 풀어주렴. 겨우내 뭇나무가 뒤마당에 한가득, 한평생 입을 옷감이 두 농쪽에 가득가득 차고넘쳤으면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니 다시 한번 풀어주렴.》

깨돌망이 듣기나 하는듯 들썩들썩거리는것 같았습니다.

꼬마곰은 깨돌망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깨돌망에서는 여전히 도토리만 툭랑툭랑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망으로는 내 소원을 다 풀수 없구나. 어떻게 한다?)

골똘히 생각하던 꼬마곰은 무릎을 쳤습니다.

도토리를 가지고 나무도 옷감도 마련할 생각을 하였던것입니다.

그는 뒤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사는 염소를 찾아갔습니다.

《염소형님, 내가 도토리를 후하게 드릴테니 우리 집 나무를 좀 해줄수 없을까요?》

《허허, 난 도토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좀 도와주지.》

염소는 혼자 사는 꼬마곰을 도와주려던 참이라 얼른 대답하였습니다.

꼬마곰은 또 높은 벼랑썩에 집을 짓고 사는 산양을 찾아갔습니다.

《산양형님은 고운 털옷을 잘 만든다면서요? 내가 도토리를 많이 줄테니 옷감을 좀 마련해줄수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사는 꼬마곰을 만나지 못해 도와주지 못하던 그인지라 쾌히 응하였습니다.

약속을 단단히 하고 돌아오는 꼬마곰은 흥에 겨워 코노

래까지 흥얼흥얼 불렀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바람으로 부지런히 망을 돌려 도토리를 가득가득 그릇에 담아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염소는 나무를 해다가 뒤마당에 쌓아놓았고 산양은 눈가루처럼 하얀 털옷감을 필필이 가져왔습니다.

꼬마곰은 낮에 밤을 이어 망질을 하였지요.

어느덧 팔은 노근하고 이마와 등골에서는 땀이 물 흐르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옷감이랑 생겨나는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새 힘이 솟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이렇게 많이 생겨난 도토리를 넣을만 한 고간 하나 변변한게 없는것이었습니다.

꼬마곰은 목수일에 능한 뒤동산의 사슴을 찾아갔습니다.

《사슴아저씨, 도토리를 후하게 드릴테니 고간을 좀 지어줄수 없겠나요?》

《얼마만 한 고간을 짓겠기에 제힘으로 못하고 날 부르냐?》

《한 열섬들이 세칸만 지을가 합니다.》

사슴은 꼬마곰의 대답에 끄찍 놀랐지만 혼자 사는 꼬마곰을 돕게 된 일이 생겨 꽤히 응하였습니다.

사슴은 푹푹툭툭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망치질을 하여 고간을 번뜻하게 지어주었습니다.

꼬마곰은 고간마다 도토리를 가득가득 채울 생각을 하며 밤낮 망을 돌리고 또 돌렸지요.

그랬더니 손이 부르르고 팔이 빠근했습니다.

좀 쉽게 망을 돌리고싶었습니다.

꼬마곰은 오소리를 찾아갔습니다.

《임자 나를 좀 도와줄수 없겠나. 내 도토리를 후하게

주지. 그저 망질하는데 도토리를 한두알씩 넣어주는거네.
그리구 너구리는 어데 갔나? 좀 같이 와주게.》

오소리도 찬성했습니다.

이리하여 너구리는 망을 돌리고 오소리는 도토리를 망에다 넣어주고 꼬마곰은 도토리를 가마니에 넣어 고간에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고간안에 그득그득 도토리가마니가 쌓여지는것을 바라보는 꼬마곰은 흐뭇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고간을 다 채우자니 허리가 휘는것 같고 어깨가 다 떨어져나가는것 같았습니다.

(또 누구를 좀 데려와야겠다.)

그는 노루를 찾아갔습니다.

《노루형님, 도토리를 후하게 드릴테니 힘센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혼자 사는 꼬마곰을 도와주지 못한것인들 가슴에 걸리던 노루인지라 선뜻 대답했습니다.

이리하여 노루는 도토리가마니를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꼬마곰은 도토리가 고간에 가득찬 다음 가마니를 세어보고 쇠를 꼭 잠그군 하였습니다.

오소리와 너구리는 손이 부르르도록 망질을 하고 노루는 멍이 들도록 가마니를 나르고 염소는 산발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왔습니다.

꼬마곰이 하는 일은 그저 가져온 나무단이나 세고 산양이 가져온 천필이나 계산하고 고간문이나 잠그는것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토리를 두 고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점점 불어난 꼬마곰은 조바심이 동하

여 오소리와 너구리를 독촉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이제 한 고간만 채우면 되네. 밤잠을 좀 덜 자더라도 참고 힘을 좀 내주게. 도토리는 약속한대로 후하게 줄테니.》

오소리와 너구리, 누렁노루는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세 고간에 도토리를 그득그득 채운 오소리와 너구리, 누렁노루는 땀을 흘리며 흐뭇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꼬마곰이 걱정없이 살게 됐으니깐요.

꼬마곰은 눈을 슴벅스름벅하면서 속궁냥을 하였습니다.

고간을 지어준 값으로 사슴한테 다섯가마니, 나무를 해온 값으로 염소한테 세가마니, 옷감을 마련해준 값으로 산양한테 두가마니, 노루한테 두가마니, 너구리와 오소리한테 각각 세가마니씩만 준다쳐도 고간 하나가 다 나가는판이었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고간 하나를 헐어야 하였습니다.

열쇠를 만지작이던 꼬마곰은 《자 약속한대로 도토리를 받게.》 하고 고간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노루는 자물쇠를 열려는 꼬마곰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도토리를 줄셈인가? 그만두게. 도토리 몇가마니 저들인걸 가지구 대가를 받겠나. 원.》

《우리도 그만두게. 이웃간에 망을 좀 돌려주었다고 도토리까지 받겠나. 우리는 도토리를 받으러 온게 아니라 일손을 좀 도와주러 왔던거네.》

오소리와 너구리는 이렇게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짐승들이 돌아간 다음 꼬마곰은 집안밖을 한바퀴 휘둘러보았습니다.

정말 흐뭇하였습니다.

뒤마당에는 나무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앞마당에는 세 칸 짜리 고간이 즐비하게 늘어서있고 농작에는 갖가지 천들이 그득하였습니다.

갑자기 잘살게 되었습니다.

(깨돌망아, 네 덕분에 난 잘살게 되었다.)

꼬마곰은 깨돌망을 쓸어만지며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도토리가 가득한 고간을 대견스레 바라보던 꼬마곰은 만족하여 히죽이 웃으면서 나무를 한아름 안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도토리밥을 량껏 지어먹으려고 고간으로 갔습니다.

고간문을 삐거덕 열어제끼던 순간 꼬마곰은 눈이 쾅해졌습니다. 글썽 고간바닥에는 송이버섯 두송이가 한들한들 바람결에 흔들거릴뿐 도토리는 한알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꼬마곰은 부랴부랴 둘째 고간, 셋째 고간도 다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도 도토리는 한톨도 없었습니다.

(아이구!)

꼬마곰은 털썩 주저앉아 눈을 슴벅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도토리가 어디 갔을까?)

당장 저녁을 끓여야겠는데 도토리가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지만 다음순간 꼬마곰은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 흥, 보물망을 가지고있는데 걱정이 뭐야. 또 함지로 쏟아질텐데. 》

그는 이 구석, 저 구석 두리번두리번 살폈습니다.

깨돌망에 넣을 도토리를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간안엔 물론 마당에도 부엌에도 도토리는 한 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생각을 굴리던 꼬마곰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염소가 해다준 나무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는 나무를 한짐 지고 산양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털친을 짜느라구 나무도 못했겠는데 추울 때 이걸 때세요.》

《아니, 이 나무야 염소가 자네 때라구 해다준게 아닌가. 어서 가져다 때라구.》

산양은 사양하였습니다.

《아니, 다르게 아니라 도토리 한줌을 줌 얻으러 왔어요.》

《뭐 도토리를? 도토리아 자네 보물망에서 팡팡 나오지 않나?》

《글쎄 고간의 도토리가 몽땅 없어지지 않았겠나요. 당장 훑일게 없는데 망에 몇알 넣고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져가게.》

산양은 한줌이 아니라 한되박을 주었습니다.

꼬마곰은 나는듯이 달려와 깨돌망에 도토리를 넣고 돌렸습니다.

《깨돌망아, 보물망아, 내 소원을 풀어주렴.》

망은 듣기나 하는 듯 들썩들썩하였습니다.

꼬마곰은 돌돌 힘을 주어 돌렸습니다.

그러나 도토리를 먹었는지 삼켰는지 깨돌망에서는 도토리커녕 가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시간 돌려도 그만 두시간을 돌려도 그만 도토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꼬마곰의 얼굴엔 실망의 그늘이 비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도토리를 적게 넣어서 그러나?)

꼬마곰은 부랴부랴 농작을 뒤졌습니다.

산양이 가져다준 흰 털천을 가지고 염소한테 가서 도토리를 바꾸어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농작에는 그렇게 많던 천이 한필도 남지 않고 몽땅 없어진게 아니겠습니까.

뒤마당에 나가보니 산더미처럼 쌓였던 나무도 없어지고 앞마당에 돌아가보니 즐비하게 늘어서있던 고간이 한채도 없었습니다.

꼬마곰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쿠, 망했구나.)

꼬마곰은 빈 망을 붙들고 그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찢찢맷습니다.

처음에 깨돌망을 만들어 도토리가 함지에 차고넘칠 때 얼마나 기뻐던가.

정말 행복을 주던 깨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행복을 누가 앗아갔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람쥐 한마리가 앞발로 재롱을 피우며 도토리 한알을 굴러가고있었습니다.

다람쥐는 울고있는 꼬마곰한테로 왔습니다.

《보물망을 만들어 잘살게 되었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다람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꼬마곰은 다람쥐에게 그전일을 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이 도토리를 넣고 돌려보자구나.》

다람쥐는 도토리를 망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안돼.》

꼬마곰은 다람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꼬마곰의 소식을 들은 사슴과 누렁노루, 오소리와 너구리, 염소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렁노루와 염소는 도토리까지 한말씩 지고왔습니다.

사슴이 긴 담배대에 담배를 다저넣고 불을 붙여물며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어 도토리랑 고간이랑 나무랑 다 없어졌을까?)

《좌우간 망을 또 돌려보자구.》

사슴이 나왔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것 같아요. 도토리가 영 나오지 않거든요. 공연히 있는 도토리마저 잃어버리지 말구 그만두자요.》

《아무래도 깨돌망이 무슨 조화를 부리는것 같애. 꼬마곰아, 빨리 돌려보자구.》

사슴이 망을 쥐었습니다.

다람쥐는 망에 난딱 올라앉아 《내가 먼저 왔으니 내 도토리부터 넣자요.》 하고 한알의 도토리를 망에 툐랑 떨구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사슴이 힘있게 망을 돌렸습니다.

망은 돌돌 잘 돌아갔습니다.

《지성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는데 자, 누렁노루 자네것도 빨리 넣으세.》

노루 도토리도 한줌, 염소네 도토리도 한줌 망으로 툐랑떨랑 들어갔습니다.

망은 돌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돌돌 돌아가던 망이 갑자기 두르릉 두르릉 저절로 돌아가며 그밀로 와르륵와르륵 도토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망을 지켜보던 이웃들은 와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앞마당에 없어졌던 고간이 우뚝 솟아나고 뒤마당에 산처럼 마른 나무가 쌓여지고 농작엔 한가득 흰 털천이 차고 넘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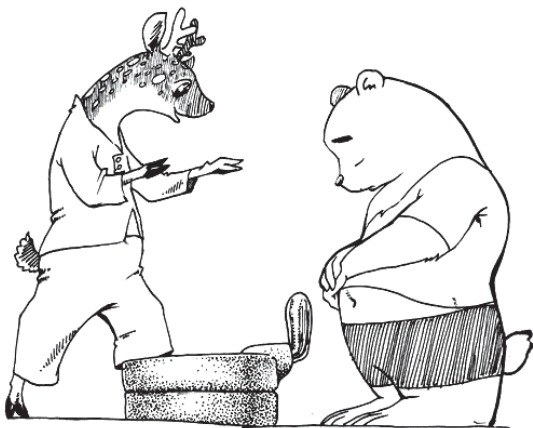
이웃들은 환성을 지르면서 좋아하였습니다.

얼이 나간 것처럼 이 광경을 바라보던 꼬마곰은 눈을 슴벅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도토리를 얼마 얻어 죽을 쑤어먹으려다가 가루가 나오지 않아 눈물을 흘릴 때 한줌두줌 보태주던 이웃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꼬마곰 뭘 생각하나?》

사슴이 꼬마곰의 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용서해주세요. 이 깨돌망은 내가 만든 보물망이 아니라 이웃들의 지성이 꽃피어 생겨난 보물망이라는걸 깨달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뽕죽봉에 올라가 돌을 캐서 깨돌망을 만든건 네가 아니냐.》

염소가 말했습니다.

《깨돌망은 내가 만들었으나 보물망은 이웃들이 만들었어요. 난 깨돌망 덕분에 잘살게 된줄만 알고 이웃들의 지성을 잊었었어요. 그래서 보물망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보물망이 있으니 응당히 잘 먹고 편안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토리도 바꿈질을 하고 제가 할 일도 남한테 시키면서 피만 부렸지요.》

《꼬마곰이 귀중한걸 깨달았구나. 이웃들의 지성을 잊어선 안되지.》

사슴은 흐느껴우는 꼬마곰의 어깨를 쓸어만지며 측은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난 앞으로 나 하나만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동산의 행복을 위하여 이 깨돌망을 돌리고 보물망이 은을 내도록 하겠어요.》

새 결의를 다지는 꼬마곰의 눈은 빛났습니다.

《은혜를 갚을줄 아는 꼬마곰이 되겠다 말이지.》

이웃들은 모두 달려와 꼬마곰을 껴안았습니다.

그후부터 꼬마곰은 한줌두줌 보태주던 이웃들의 지성이 가슴깊이 새기며 자기 혼자뿐만아니라 온 동산 짐승들이 다 배불리 먹을수 있는 도토리를 얻기 위하여 보물망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